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심 정보**

- 1. 머리말
- 2.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개념
- 3.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조 및 구성
- 4.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개발
- 5. 맺음말

[국문초록]

최근 국가기록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 한국의 주요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영국의 TNA와 미국의 NARA 및 LC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 대상의 기록정보 서비스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

* 이 글은 줄고,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구성 및 개발절차,”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8을 축약재정리한 것이다.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ssb@dssb.pe.kr

과, 한국의 기록관리 현실 및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정보 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생과 교사 대상의 기록정보 서비스는 ‘서비스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기록관리 품질의 점진적 향상’이라는 목적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고객군은 ‘한국사 교수·학습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로 세분화하여 식별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분석한 결과, 기록정보는 교수·학습자료용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록정보를 콘텐츠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성격은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로 개념화할 수 있다.

콘텐츠 서비스를 개념화하고 구성한 후 실제로 개발하는 전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핵심적이다.

첫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기록관리의 체계화와 전통적인 기록관리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기록정보와 주제별 교수·학습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콘텐츠의 수량보다 콘텐츠의 품질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편, 초·중·고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2011년에는 모든 국사 교과서가 새로운 내용으로 보급될 예정이고, 서책형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 시기에 학생·교사 대상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된다면, 기록문화의 창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사를 교수학습하는 430만명의 학생과 1만 4천명의 교사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로 교수학습하게 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념을 확립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심도 깊게 분석해야 한다.

셋째,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 전문가집단과 교사집단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2011년까지의 단계별 추진 과제와 추진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문화의 창달을 위한 알찬 씨앗이 초·중·고등학교에도 하루빨리 뿌려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아카이브즈, 보존기록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교수학습자료, 교육

1. 머리말

기록관리 선진국의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서 오래 전부터 학생과 교사 대상의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영국 국립보존기록관(TNA)이 1998년에 ‘학습곡선

(Learning Curve)’ 서비스¹⁾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²⁾ 또한 미국 국립기록청(NARA)도 국립보존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 웹사이트의 톱메뉴 중 하나로 ‘교육자와 학생(Educators and Students)’ 서비스³⁾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국회도서관(LC)도 자관 웹사이트의 주요 메뉴 중 하나인 ‘미국의 기억(American Memory)’의 일부로서 ‘학습 페이지(The Learning Page)’ 서비스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기록원이 2006년 12월 초등학생 대상의 ‘나는 대통령’⁵⁾과 ‘훈장 전시관’⁶⁾이라는 온라인 전시를 시작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2007년말까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료 콘텐츠’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⁷⁾ 이러한 시도를 본격적인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로 평가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거나 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중요한 변화이다.

학생은 전통적으로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서비스 확대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고객군(group)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기록문화가 일천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1) <http://www.learningcurve.gov.uk/default.htm> 이 글의 모든 URL은 2007년 6월 6일 현재 서비스중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2) TNA의 ‘학습곡선’ 서비스가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생한 모습은 영국 Teachers TV의 “Using Institutions - The National Archive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http://www.teachers.tv/video/13819>

3) <http://www.archives.gov/education/>

4) <http://memory.loc.gov/learn/>

5) <http://www.archives.go.kr/imp/htm/main.jsp>

6) <http://www.archives.go.kr/hunjang/htm/main.jsp>

7)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료 콘텐츠 구축을 위한 모형 및 절차 개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참조. 필자는 이 연구 프로젝트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학생은 미래에 기록문화를 꽃 피울 주역이며 미래에 기록관리 기관을 애호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객군이다.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에 도달해 있는 공교육 정보통신 인프라와 2007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보급 추세⁸⁾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에서도 학생에게 기록정보를 활용한 교과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기록정보 서비스를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으며, 미래 시점에는 우량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현실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진행하기에는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록관리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올바른 전망을 수립하고, 유관 분야로부터 기존의 연구 및 경험을 차용하여,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기록정보 서비스를 다름 아닌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학생과 교사’라는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도 가급적 광범위하게 고객 대상을 설정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고객군을 세분화하여 논의의 범위를 축소한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전통적으로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

8) 2007년부터 초등학교 4개교에서 태블릿 PC에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초·중·고 100개교에 보급될 계획이다. 「디지털 국사 부교재 초·중·고에 배포」 YTN, 2006. 10. 9 참조. 「‘중이 교과서 없는 교실’ 곧 현실화」 YTN, 2007. 3. 7 동영상 뉴스를 통해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http://www.ytn.co.kr/_ln/0103_200703071707512516

트 보존소의 주요 이용자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가능한 한 고객군을 세분화하여 논의를 심도 깊게 진행하는 것이 차후 광범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학생과 교사’라는 상대적으로 광범한 이용자 대상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욕구를 식별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록정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개발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특수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① 서비스 개념 설정 ② 서비스의 구조 및 기능 설계 ③ 서비스 개발절차 계획 및 개발 등 일반적인 웹서비스 개발의 흐름에 따라 논의를 전개한다.

2.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개념

1) 기록정보 서비스에서 고객 세분화의 중요성

아카이브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다양하다. 푸(Pugh)는 이용자를 직업적 이용자와 비직업적 이용자로 대별하고, 직업적 이용자로는 모기관 직원, 기타 기관 직원, 학자, 학생, 대학교원, 초·중·고교 교사를 식별하고, 비직업적 이용자로는 족보학자, 역사애호가, 취미생활자를 식별하였다.⁹⁾

9) Mary Jo Pugh,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2005, pp. 43-60.

이러한 이용자 식별을 기반으로 하여 푸는 1992년 자신의 저서에서 위와 같이 식별되는 각각의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아키비스트의 활동”¹⁰⁾을 ‘reference service’라고 하였고, 한국에서는 이를 기록정보 서비스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해왔다.¹¹⁾

그러나 푸는 10여 년이 경과한 뒤인 2005년 자신의 저서에서, ‘reference service’를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와의 모든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공공(public) 서비스 프로그램 전체”¹²⁾라고 확장시켜 정의하였다. 이는 ‘reference service’ 개념에 대한 디어스틴(Dearstyne)의 비판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¹³⁾

디어스틴은 2000년 자신의 저서에서, ‘reference service’는 너무 협소하고 수동적인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보관 지향의 개념으로 판단되는 ‘reference service’ 대신에 이용자 지향의 개념으로서의 ‘researcher service’를 제안하였다.¹⁴⁾

- reference service 개념에서는 활용이 여러 가지 원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researcher service 개념에서는 활용이 아카이

10) Mary Jo Pugh,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1992, 설문원 역, 『기록정보서비스』 진리탐구, 2004, 23쪽.

11) 같은 책, 9쪽 역자 서문 참조.

12) Mary Jo Pugh,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2005, p. 24.

13) Pugh는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2005, pp. 24-25에서 Bruce W. Dearstyne, *Managing Historical Records Program: A Guide for Historical Agencies*, AltaMira Press, 2000의 reference service 관련 내용을 우호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14) Bruce W. Dearstyne, *Managing Historical Records Program: A Guide for Historical Agencies*는 역사 관련 기관이 역사기록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는 역사기록 이용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범주를 researcher(연구자)로 식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researcher service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researcher service는 ‘연구자 서비스’보다는 ‘이용자 서비스’로 이해되어야 한다. p. 102 참조.

브즈 업무에서 제일 주요한 원리이다.

- reference service 개념에서도 이용자 정보에 관심 있어 하지만 프로그램 기획에서 이용자 정보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데 반하여, researcher service 개념에서는 이용자 정보를 프로그램 기획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
- reference service 개념에서는 마케팅이 부차적인데 반하여, researcher service 개념에서는 마케팅이 최우선적이다. ...
- reference service 개념에서는 기록, 맥락, 저장소 운영 등의 진가를 이용자에게 교육하려드는 데 반하여, researcher service 개념에서는 검색도구와 서비스가 이용자 욕구에 의하여 조정된다.¹⁵⁾

디어스틴은 ‘reference service’ 개념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중심은 보존에서 활용으로 이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활용을 포함한 기록관리 전반이 이용자 욕구에 의하여 역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헬람 스미스(Hallam Smith)는 2003년에 아카이브즈의 서비스에 고객중심과 마케팅을 이론과 실제의 모든 측면에서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⁶⁾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영국 국립보존기록관(PRO) 서비스의 역사에서, 2002년에 새로운 마케팅 모델을 도입하고 관심사를 기준으로 고객을 세분화한 것이 중차대한 전기였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마케팅 모델이란, 서비스보다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목하

15) 같은 책, p. 105.

16) Elizabeth Hallam Smith, "Customer Focus and Marketing in Archive Service Delivery: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4(1), 2003, pp. 46-49.

는 것이며, 부서별로 독립·분산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시장’과 ‘산출물’을 중심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헬럼 스미스의 연구는 기록관리 선진국인 영국의 국립보존기록관이 이미 고객 중심의 마케팅 이론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케팅 이론에 근거하여 기록 정보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고객 세분화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기록관리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용자 욕구를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가 언급되기 시작한 이후,¹⁷⁾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론과 실제의 모든 측면에서, 고객관리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이용자(고객)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이용자(고객)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2) 세분화된 고객으로서의 학생·교사의 기본 데이터와 관심 정보

한국에서도 학생과 교사는 아카이브즈의 주요 이용자 또는 주요 잠재적 이용자로 구분될 수 있는 직업계층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생과 교사가 아카이브즈와의 주제상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

17) 일찍이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일부 아키비스트는 이용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논의를 이끈 Elsie Freeman Finch는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material-centered)이 아니라 고객 중심(client-centered)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lsie Freeman Finch, "In the Eye of the Beholder: Archives Administration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American Archivist* 47, Spring 1984, pp. 111-123. Mary Jo Pugh,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2005, p. 280에서 재인용.

심적인 이용자 또는 잠재적 이용자라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계층에 근거하여 분류된 ‘학생과 교사’라는 고객군을, ‘한국사 교수·학습활동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라는 세분화된 고객으로 식별하여, 이들이 아카이브즈에게 기대하고 또한 아카이브즈에서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관심 정보)를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세분화된 고객의 기본 데이터로서의 규모를 분석해보자.

교육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학생과 교사의 규모는 학생 7백80만명, 교사 39만명이다.¹⁸⁾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사 관련 과목을 학습하고 교수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운영된다.

이들 학년의 교사와 학생의 숫자를 교육통계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특정 학년도에 한국사를 학습하고 있는 학생의 숫자는 초·중·고 430만명이며, 한국사를 교수하고 있는 교사의 숫자는 초등학교 8천명, 중·고등학교 6천명, 합계 1만 4천명이다.¹⁹⁾

다음으로는 고객의 환경을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관심 정보를 파악해보자. ‘한국사 교수·학습활동’중인 고객의 환경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기본적인이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구성주의 교육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²⁰⁾

18)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6. <http://cesi.kedi.re.kr/index.jsp> 요약된 내용은 줄고, 석사학위논문, 9쪽 참조.

19)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한국사 관련 단원이 존재하는 4-6학년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체 초등학교 교사 163,645명의 절반으로 추정한 것이며,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전국역사교사모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휴머니스트, 2002, 6쪽 참조.

20) 2007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을 수시개정의 개념으로 일부 개정하는 고시를 공표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5

구성주의 교육이론은, 지식기반 사회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인간에게는 독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수자는 정식화된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교수해야 하며,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의 활동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시한다.²¹⁾

교과 수준으로 구성주의 교육이론이 구체화되면, 국사교육의 지도방향은 “사건 또는 주제별로 구체적인 활동상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이해하는 데 힘쓰도록”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²²⁾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은 자기주도적인 교수·학습활동에서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웹 활용 교육(Web Based Instruction, WBI)이라고 개념화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구성주의 교육이론을 따르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스스로 웹을 활용하는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학년에, 중학교에서는 2학년과 3학년에,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에 국사를 학습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며, 수업시수도 현행 제7차 교육과정 대비 50% 증가한다. 고객의 규모가 증가하고 고객의 욕구도 증가하는 것이다. 한편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는 2009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한국 근현대사 관련 교과서는 초·중·고 모두 2011년에 동시 적용된다.

21) 김관수 외,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학지사, 2000, 259-279쪽.

22)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편찬위원회,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국사』 대한교과서, 2002, 13쪽.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이 실제 차시 수준에서는 ‘주제별 학습’을 중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① 단원별로 설정된 주제·제제를 기반으로 하되, 교사 스스로 주제를 개발하고, ② 1개 또는 연속차시는, 주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설정된 여러 개의 작은 교수·학습활동으로 구성하되, ③ 각각의 교수·학습활동은, 교수·학습방법과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구조화되며, ‘교수·학습 구성안’이라는 형태로 교사에 의하여 사전에 준비된다.

이러한 교수·학습환경에 비추어볼 때, ‘한국사 교수·학습활동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라는 세분화된 고객이 아카이브즈에 기대하는 것(관심정보)은, 기록정보가 ‘교수·학습활동을 전제로 한 교수·학습자료’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관심정보가 웹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웹 활용 교육(WBI)과 연결되어 더욱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3) 기록정보의 콘텐츠화 필요성

‘한국사 교수·학습활동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라는 세분화된 고객이 ‘교수·학습활동을 전제로 한 교수·학습자료’를 아카이브즈에 기대한다면, 아카이브즈에게는 세분화된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아카이브즈가 전통적인 검색도구를 통하여 소장 기록의 기록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사 교수·학습활동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라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사는 기록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하려고 해도, 적합한 기록을 조사하고 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가 어렵다.²³⁾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누군가 외부에서 교육과정 에 비추어 필요한 기록을 선별하여 제공한다면,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면 손쉽게 빠르게 교사가 기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러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 교사가 교수·학습에 활용할 기록을 선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교수·학습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기록을 학습 주제나 학습 개념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록의 맥락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²⁵⁾ 현실적으로 교사 개인이 스스로 감당하

23) 미국의 사서 겸 아키비스트인 Ron Chepesiuk은, 1983년 영국과 아일랜드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에서, 교사가 교실에서 자료를 활용하는 데 겪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자료를 결합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둘째, 행정업무 과다로 인하여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셋째, 새로운 접근법을 교실에서 사용하는 데 대하여 주저한다는 점. 넷째, 기록관과 거리가 멀다는 점. Ron Chepesiuk, "Archives and the Child: Educational Service in Great Britain and Ireland," *Provenance* 1(2), Fall 1983, pp. 45-58. Anne J. Gilliland-Swetland, Yasmin B. Kafai and William E. Landis. "Integrating Primary Sources in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Archivaria* 48, Fall 1999, p. 93에서 재인용.

24) 1차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학생이 직접 1차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원칙 일텐데, 교사가 사전에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은 사료학습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디지털화하여 제공되는, 1차 사료의 디지털 사본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하는 것은 기록 원본을 활용하는 교수·학습과 비교할 때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Anne J. Gilliland-Swetland 외, "Integrating Primary Sources in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pp. 94-95 참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교수·학습과정중이나 종료 후에 교사가 제공하는 기록 이외의 기록을 스스로 검색하여 활용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교실에서 디지털 사본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아카이브즈를 방문하여 원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활동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다.

25) Lee Ann Potter, "Introducing Students to Primary Source Documents," *The Our Documents Initiative, Teacher Sourcebook* vol. III, 2004, p. 23.

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듯 기록정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날 것’으로서의 기록을 포함한 기록정보만으로 교사가 교수·학습을 준비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조건과 능력의 양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서구 기록관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을 활용하려는 교사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시도되어왔다.

1983년 미국의 사서 겸 아키비스트 체페시옥(Chepesiuk)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에서, 교실에서 기록을 활용한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사를 도와 주어야 한다면서, ① 교사 및 학생과 함께 직접 작업할 수 있는 스테프를 아카이브즈가 고용하여 보유할 것과 ② 교사를 양성하여 교사가 스스로 교실에서 기록을 결합시켜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교수·학습 경력자를 스테프로 고용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⁶⁾

1990년 캐나다의 아키비스트 윌슨(Wilson)은 스테프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용 키트와 가이드는 물론이고 맞춤형 전시와 출판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⁷⁾

이러한 여러 제안과 시도는 교사가 기록을 활용하여 지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키비스트 등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미디

26) Ron Chepesiuk, "Archives and the Child: Educational Service in Great Britain and Ireland," *Provenance* 1(2), Fall 1983, pp. 45-58. Anne J. Gilliland-Swetland 외, "Integrating Primary Sources in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p. 93에서 재인용.

27) Ian Wilson, "Toward a Vision of Archival Service," *Archivaria* 31, Winter 1990-91, pp. 91-100. Anne J. Gilliland-Swetland 외, "Integrating Primary Sources in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p. 94에서 재인용.

어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것이었지만,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보급된 웹을 기록을 활용한 교수·학습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사용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원격지에서 상시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록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려고 해도 시간과 역량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록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웹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카이브즈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객을 위하여 기존의 ‘기록정보’ 이외에 ‘추가 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 2개 범주의 정보는 고객의 요구에 기반하여 상호 연관된 1개의 정보 객체로서 구성되어야 고객 지향의 정보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보 객체를 ‘콘텐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정보 콘텐츠’로 개념화하고자 한다.²⁸⁾

콘텐츠(content) : 텍스트, 소리(음악), 영상(고정된 영상, 동영상), 혹은 이들의 결합물이나 연속물로서, 인간을 위해 대량 유포의 목적으로 조직화된 메시지나,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의 통칭²⁹⁾

28) 설문원·김익한은 “개인이나 조직활동의 결과물이자 과정의 산물인 기록 안에는 무수한 지식과 정보가 내재해 있으나, 기록의 존재형식이나 조직방식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렵다. 기록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점차 다양해지는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록 안에 담긴 풍부한 정보를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하여 지적 접근성(intellectual accessibility)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설문원·김익한,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 분석에 기반한 역사 콘텐츠 설계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한국비블리아학회, 2006, 116쪽.

기록정보 콘텐츠 : 세분화된 고객의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객의 욕구에 기반하여 추가 제작하여, 기록정보와 함께 결합물이나 연속물의 형태로 조직화하여 배포되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

4)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성격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아카이브즈가 ‘한국사 교수·학습활동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라는 세분화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기록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기록정보 서비스 이상의 서비스이다.

둘째,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고객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된 서비스이다.

셋째,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교수·학습 활동을 포함한 교수·학습 구성안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넷째,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학생과 교사가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다섯째,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전체 서비스와의 연관성 속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29)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사료 콘텐츠 구축을 위한 모형 및 절차 개발 연구』, II-1-2쪽. 이 개념 정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2004. 2, 70-72쪽을 참조하였다. http://www.software.or.kr/ICSFiles/afieldfile/2004/05/28/P03_25.pdf

3.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조 및 구성

1) 전통적인 기록정보 서비스와의 관계 : 기록정보 DB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아카이브즈가 운영 중인 여러 종류의 서비스, 예를 들면 아카이브즈 소개, 검색 및 열람, 연구자일반인 대상 정보 서비스, 기록관리 전문가 대상 정보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서비스와 통합화와 차별화의 균형 속에서 연계 서비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카이브즈의 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기록정보 DB 층위에서의 연계 문제는, 아카이브즈가 소장·관리 중인 전체 기록정보 DB와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록정보 DB를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통합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통합의 수준은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규모와 구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록정보 DB의 레코드는 반드시 전체 기록정보 DB의 유일한 레코드값(Unique ID)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야 전체 기록정보 DB가 통합관리되는 전제하에서, 각각의 세분화된 고객별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기반이 아니라 파일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 운영 형태가 다양할 것이므로, 통합관리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다.

전체 기록정보 DB와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록정보 DB를 통합관리하게 되면, 서비스 측면에서도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체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NARA ‘교육자와 학생’ 서비스의 ‘문서활용교육(Teaching with Documents)’ 메뉴의 경우, 개별 기록의 기록정보가 출력되는 화면에서는 NARA의 기록검색 서비스인 ‘Archival Research Catalogue(ARC)’의 고유번호(identifier)를 동시에 출력하면서 ARC 시작화면으로의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화면만으로는 어떤 수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이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DB를 관리할 때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에서 서비스 중인 개별 기록을 ‘영구적으로’ 전체 기록정보 DB 서비스에 기반한 기술(description) 화면으로 하이퍼링크 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인 것이다.

전형적인 사례는, 교수·학습자료용 서비스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호주 NAA의 ‘비범한 삶(Uncommon Lives)’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⁰⁾ 이 서비스는 인물을 기록에 기반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NAA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과 외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포괄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개별 기록 상세정보화면에서는, 해당 기록이 NAA 소장 문서류 기록일 경우,

30) <http://uncommonlives.naa.gov.au/default.asp>

‘RecordSearch’라는 이름의 기본 검색도구를 통하여 해당 기록이 포함된 기록철 검색결과 화면, 즉 기록철 기술 화면으로의 하이퍼링크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연계 서비스는 교수·학습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하는 학생이 해당 기록에 대한 정보를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수준에서 발전하여, 아카이브즈의 기본적인 검색도구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고, 교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록 이외의 기록을 접하게 되며, 나아가 아카이브즈에서의 기록정보 서비스 전반을 활용하게 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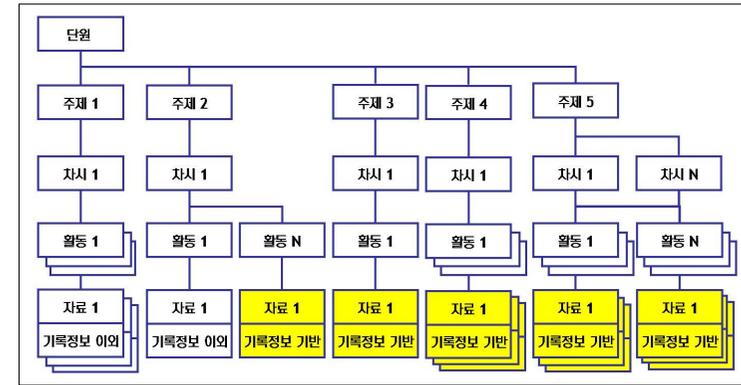
2) 교수·학습자료로서의 콘텐츠 구조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교사가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수·학습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교육과정의 골격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는 일회적으로 개발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획되고 개발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양방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위 - 주제·제재 - 차시 - 교수·학습활동 - 교수·학습자료라는 구조에 기반하여 콘텐츠 구조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관계를 기록정보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자료를 중심에 놓고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수·학습활동과 교수·학습자료의 관계



주제 1은 교수·학습자료로 기록정보 콘텐츠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주제 2는 교수·학습 활동 및 자료로 기록정보 콘텐츠가 아닌 것이 주로 사용되고, 소규모의 활동 및 자료로 1개 기록정보 콘텐츠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주제 3은 1개 차시 전체의 교수·학습 활동 및 자료로 1개의 기록정보 콘텐츠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주제 4는 1개 차시 전체의 교수·학습 활동 및 자료로 여러 개의 기록정보 콘텐츠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주제 5는 여러 개의 차시에 걸쳐 교수·학습 활동 및 자료로 여러 개의 기록정보 콘텐츠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구조는 서구 기록관리 선진국의 학생·교사 대상 서비스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NARA ‘교육자와 학생’ 서비스의 ‘문서활용교육’ 메뉴는 위의 주제 3과 주제 4의 경우를 상징하고 교수·학습 구성안이 개발되었으며, 주제 3과 주제 4의 2가지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1개의 교수·학습 구성안이 연속차시를 전제로 하는 예외는 있다.

LC ‘미국의 기억’ 서비스의 ‘학습 페이지’ 메뉴도 위와 동일하다.

TNA ‘학습곡선’ 서비스는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고 개발되었는데, 실제로 콘텐츠 구조를 설계할 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 곡선’ 서비스는 교수·학습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하여 4개의 형식을 설계해 놓고 있다.

- 심층 교수·학습 구성안(Exhibitions: in-depth topics) : 주제 4를 상정한 경우로서, 1개 차시에 비교적 많은 기록정보 콘텐츠가 활용된다. 전체학습에서 연속적으로 기록정보 콘텐츠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전체학습에 이은 소집단학습에서 각각의 소집단이 사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 콘텐츠가 제공되기도 한다.
- 차시 맞춤 교수·학습 구성안(Snapshots: single lessons) : 주제 3을 상정한 경우로서, 1개 차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소수의 기록정보 콘텐츠만이 활용된다.
- 역사연구방법 교수·학습 구성안(Focus on: history skills) : 주제 5를 상정한 경우로서, 역사연구의 기술(skill)까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심층 교수·학습 구성안이나 차시 맞춤 교수·학습 구성안의 기록정보 콘텐츠에 기초하면서 추가의 내용이 곁들여 있다.
- 교육서비스 워크숍(Education Service Workshop) : 주제 5를 상정한 경우로서, 학생과 교사가 아카이브즈를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회의(videoconference)를 통하여 아키비스트와 함께 워크숍을 하게 된다.³¹⁾

그런데 ‘학습곡선’ 서비스에는 4개의 형식 이외에도 또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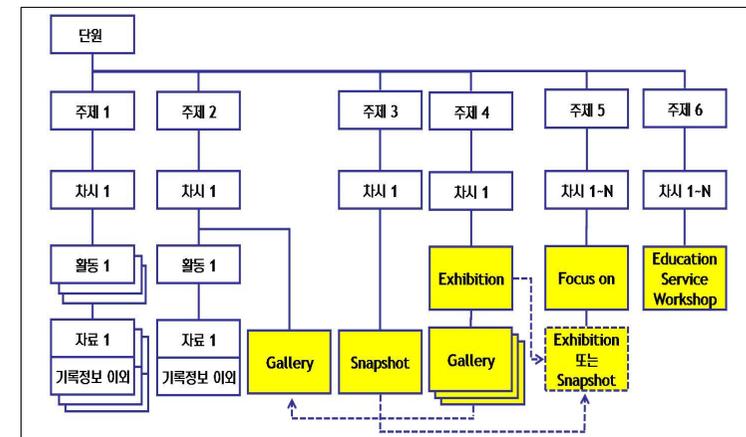
31) <http://www.learningcurve.gov.uk/index/default.htm> 및 Ben Walsh, *Teacher's Booklet: A Guide to the Learning Curve*, The National Archives, p. 18 <http://www.learningcurve.gov.uk/teachers.pdf> 참조.

형식이 존재한다. 심층 교수·학습 구성안(Exhibition)의 하위 구성요소로서의 갤러리(Gallery)가 바로 그것이다. 갤러리는 주제 4의 경우처럼 여러 개의 갤러리들이 함께 심층 교수·학습 구성안(Exhibition)을 형성하여 1개 차시에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심층 교수·학습 구성안(Exhibition)과 분리되어 주제 2의 경우에서처럼 독자적으로 다른 갤러리들과 함께 활용될 수도 있다.

이렇듯 갤러리라는 형식은 교사의 판단에 의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형식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학습곡선’ 서비스의 콘텐츠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TNA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구조



‘학습곡선’ 서비스의 콘텐츠는 2개 층위의 중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교수·학습의 목적과 활용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서, 심층 교수·학습 구성안(Exhibition), 역사연구방법 교수·학습 구성안(Focus on), 교육서비스

워크숍(Workshop)은 대규모로서 상층을 형성하고, 차시 맞춤 교수·학습 구성안(Snapshot)과 갤러리는 소규모로서 하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콘텐츠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면 극대의 효과를 피할 수 있다. ‘학습곡선’ 서비스는 주제색인에 총 147개의 목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74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³²⁾

그런데 ‘학습곡선’ 서비스를 구성하는 74개 콘텐츠 단위는, ① 65개의 갤러리로 구성된 12개의 심층 교수·학습 구성안(Exhibition) ② 50개의 차시 맞춤 교수·학습 구성안(Snapshot) ③ 5개의 역사연구방법 교수·학습 구성안(Focus on) ④ 7개의 교육서비스 워크숍(Worksho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그림 2>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대규모 콘텐츠 24개와 소규모 콘텐츠 50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TNA ‘학습곡선’ 서비스는 1066년에서 오늘날까지의 1천년에 이르는 영국의 역사를 교육과정에 맞추어 씨줄과 날줄을 드리우고,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는 지점 가운데 147개의 지점에 주목하여 이를 74개의 콘텐츠로 구조화한 후, 교수·학습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콘텐츠의 규모와 성격을 최적화하여 콘텐츠를 개발해놓은 형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3) 개별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내부구조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는 교수·학습 구성안을 전제로 하여 교수·학습활동과 교수·학습자료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학생이 학습활동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록)정보를 포

32) 74개 콘텐츠 목록은 줄고, 석사학위논문, 39-41쪽 참조.

함하고 있어야 하며, 교사가 교수활동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록)정보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개별 기록정보 콘텐츠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개별 콘텐츠의 1차적인 열람자를 누구로 상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별 콘텐츠는 학생과 교사가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① 시작화면을 학생과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구성하는 방안, ② 학생만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방안, ③ 교사만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시작화면을 학생 대상으로 구성하면, 시작화면의 정보는 교사에게도 의미있는 정보가 된다. 그러나 시작화면에 교사 대상 정보가 존재하면 학생에게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시작화면은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하고 교사를 위한 정보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TNA ‘학습곡선’ 서비스는 개별 기록정보 콘텐츠 시작화면을 학생 대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사를 위한 정보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이동해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LC ‘미국의 기억’ 서비스의 ‘학습 페이지’ 메뉴도 동일하다.

그러나 NARA ‘교육자와 학생’ 서비스의 ‘문서활용교육’ 메뉴는 모든 개별 기록정보 콘텐츠 시작화면이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메뉴가 기본적으로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구성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문서활용교육’ 메뉴는 이름 그대로, 해당 서비스에서 교수·학습활동이 진행되지 않는, 교수·학습 구성안 서비스이고, 교사를 위하여 다운로드용 기록정보 미디어와 교수도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내부구조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이하에서는 개별 콘텐츠의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 즉 데이터 요소 하나하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내부구조

	대상		구분	데이터 요소
	1차 대상	2차 대상		
교수·학습 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학생	교사	교수·학습 활동용 추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년 • 해당 단원 • 교수·학습 주제 • 교수·학습활동 내용 ◦ 교수·학습활동용 추가 콘텐츠 : 퀴즈, 게임 등 ◦ 학습지 ◦ 연표 ◦ 용어집 ◦ 도움말 ◦ 인쇄용 파일
			본연의 기록정보	전체적 으로
	개별 기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제목 • 기록 생산일 • 기록 소장사항 정보 • 기록 형태 정보 • 기록 맥락정보 • 디지털 사본 • 디지털 사본의 확대 이미지 • 디지털 사본의 썸네일 이미지 • 전사(轉寫, transcript) • 아카이브즈 기본 기술정보로의 하이퍼링크 ◦ 관련 기록 목록 : 아카이브즈 기본 기술정보로의 하이퍼링크 포함 • 권리사항 		
	교사	-	교수·학습 활동용 추가정보	◦ 교수·학습활동시 유의사항
본연의 기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용 심층 맥락정보 ◦ 교사용 관련 기록 목록 : 아카이브즈 기본 기술정보로의 하이퍼링크 	

주 : • 표시는 필수, ◦ 표시는 선택.

(1) 교수·학습 활동용 추가정보

① 해당 학년, 해당 단원

해당 학년은 개별 콘텐츠가 이용자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세분화된 고객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몇 학년 정도의 지식 수준을 상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지식지도에 근거하여, ‘몇 학년의 교육과정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의미이어야 한다.

해당 단원은 검인정 교과서라 하더라도 ‘교육과정 해설서’ 및 ‘편찬상의 유의점’ 등을 통해 각각의 검인정 교과서가 단원 설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교수·학습 주제

제7차 교육과정은 주제별 학습을 지향하며, 기록정보 콘텐츠가 교수·학습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중의 하나도 주제별 학습이라는 개념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국사는 정치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주제별로 구성하겠다는 원칙에 서 있다. ... 새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 이수단위 수에 맞추어, 대략 한 시간에 하나의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고수할 필요는 없다. 주제의 순차를 조정하거나 몇 개의 주제를 합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 또는 하나의 주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는 방안 등 교사들의 관점과 학생들의 흥미도에 맞추어 재구성을 해야 할 것이다.³³⁾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주제는 교과과정과 교

33)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편찬위원회,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국사』, 28쪽.

사용 지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주제들을 기반으로 하되, 기록정보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을 상정하고 새롭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TNA ‘학습곡선’ 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개발에서 ‘핵심 질문(key question)’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함으로써, 핵심질문을 통해 학생이 개별 사료들이 왜 제시되었는지를 이해하고 학습활동의 초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수·학습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핵심질문에서 모든 활동이 도출되고 모든 활동은 개발된 기록정보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며, 반대로 모든 활동과 기록정보는 핵심 질문과 연관되어야 한다.³⁴⁾

③ 교수·학습활동 내용

교수·학습활동 내용은, 기록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도입 - 전개 - 정리’ 단계의 흐름에 맞추어 제공하는 부분이다.

개별학습, 소집단학습, 전체학습 등 수업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내용의 전개에 따라 여러 가지 활동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될 수도 있다.

기록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이니만큼, 모든 세부 활동은 1개 이상의 기록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활동 내용은, 개별 콘텐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또한 데이터 규모도 큰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여러 개의 데이터 요소로 분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수·학습활동은 주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업방법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이 도입되고 있는 TNA ‘학습곡선’ 서비

34) Ben Walsh, *Teacher's Booklet: A Guide to the Learning Curve*, pp. 13-14.

스의 경우, 교수·학습활동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형화된 페이지로 구현하지 않고, 일일이 개별 콘텐츠의 성격에 맞도록 HTML로 구현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판단된다.

④ 교수·학습활동용 추가 콘텐츠

학습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퀴즈나 게임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TNA ‘학습곡선’ 서비스의 ‘죄와 벌’에서는 각각의 갤러리마다 학습활동을 통해서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시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 하는 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범죄에 어느 정도의 징벌이 가해졌을까 등등을 이용자 스스로 추론하면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기록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내용 중심으로 소박하게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구성한 것이 돋보인다.³⁵⁾

⑤ 학습지(Worksheet)

웹 화면을 통해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방식의 학습지를 파일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일 형태에 학생이 스스로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운로드하여 출력한 후 학생이 직접 기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습활동 과정에서 발견한 것을 그때그때 작성하면서 다음 단계로

35) TNA ‘학습곡선’ 서비스 가운데 ‘죄와 벌(<http://www.learningcurve.gov.uk/candp/default.htm>)’의 하위 메뉴로 서비스되는 12개의 갤러리에는 모두 서로 다른 게임이 제공되고 있다.

나아가게 하는 학습지도 있을 수 있고, 학습활동을 정리하면서 기록을 활용해서 획득한 생각을 명료화하기 위한 학습지도 있을 수 있다.³⁶⁾

TNA ‘학습곡선’ 서비스에서는 각각의 교수·학습활동에 최적화된 학습지만 제공하고 있다.

NARA ‘교육자와 학생’ 서비스의 ‘문서활용교육’ 메뉴에서는, 서비스의 성격이 교수·학습용 콘텐츠라기보다는 교수·학습 구성안에 가깝기 때문에, 학습지가 교수·학습활동에 최적화되어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NARA의 서비스는 ‘기록분석도구(Document Analysis Worksheet)’를 개발하여 유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록분석도구’는 일반문서(written document), 사진, 시사만화(cartoon), 포스터, 지도, 공예품(artifact), 동영상, 녹음(sound recording) 등의 기록형태별로 8가지가 개발되어, 학생 스스로가 개별 기록의 맥락·내용·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⁷⁾

⑥ 연표, 용어집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을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데, 그중 연표와 용어집이 대표적일 것이다.³⁸⁾ 용어집은 해당 교수·학습자료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국어사전, 역사용어사전, 시사용어사전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36) Ben Walsh, *Teacher's Booklet: A Guide to the Learning Curve*, p. 21 참조.

37) <http://www.archives.gov/education/lessons/worksheets/>

38) TNA ‘학습곡선’ 서비스 가운데 ‘냉전(<http://www.learningcurve.gov.uk/coldwar/default.htm>)’의 하위 메뉴로 서비스되는 6개의 갤러리에는 모두 서로 다른 연표와 게임이 제공되고 있다.

⑦ 도움말

학생과 교사에서 모두 필요한 도움말을 의미하는데,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따른 주의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고, 필수적인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를 위한 하이퍼링크 등 기술적인(technical) 사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⑧ 인쇄용 파일

개별 콘텐츠는 웹사이트를 열람하면서 진행될 수도 있지만 교수·학습환경상 인쇄물을 통하여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웹사이트의 내용과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반영한 인쇄용 파일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⑨ 교수·학습활동시 유의사항

교사가 교수·학습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교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교수·학습 목표, 심화 프로그램으로의 활용방법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학생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 본연의 기록정보

① 맥락정보

개별 기록 단위의 맥락정보가 아니라 개별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의 기록의 맥락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정보는 교수·학습활동의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교수·학습활동의 흐름상 제시되기 어려울 때에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수·학습활동은 일정 주제하에서 전개되는 것인데, 그

와는 일정 정도 거리가 먼 내용일지라도 개별 기록을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하여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록정보의 속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콘텐츠에 사용된 모든 기록정보를 한데 모아서 목록화하여 서비스하는 화면에서 이들 기록 전체 또는 일부분과 관련된 맥락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② 기록 제목, 기록 생산일, 기록 소장사항 정보

기록 기술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제공해야 한다. 대상이 학생이니만큼, 기술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카이브즈가 관리하는 정확한 제목, 생산일 등을 포함하여 소장사항 정보 형태로도 제공하여, 해당 기록이 정확하게 인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③ 기록 형태 정보

아카이브즈가 기록을 형태별로 분류하는 분류방식에 맞추어서 제공되는 것이 기본적인지만, 분류방식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해당 기록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해당 기록물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흥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TNA ‘학습곡선’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형태 분류 이외에도, 시(poem) 포스터, 팜플릿, 그림(picture), 드로잉(drawing), 회화(painting), 조각과 같이 형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³⁹⁾

39) <http://www.learningcurve.gov.uk/index/default.htm> 의 ‘더 보기(more info)’에서 제공

④ 기록 맥락정보

일반적으로 학생 대상의 서비스에서는 개별 기록별로 맥락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과다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학습활동의 내용상 개별 기록에 대한 맥락정보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 사본, 디지털 사본의 확대 이미지, 디지털 사본의 썸네일 이미지

디지털 사본을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용 콘텐츠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세밀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확대 이미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⑥ 전사(轉寫, transcript)

한자, 고어체, 흘림체 등으로 기록이 작성되어 있거나 기록이 훼손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기록을 해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용에 조금이라도 난점이 있다면, 기록 전체를 베껴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⑦ 아카이브즈 기본 기술정보로의 하이퍼링크 정보

학생이나 교사가 해당 기록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열람하려 하거나, 해당 기록이 포함된 기록철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이퍼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이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즈의 기본 검색도구를 통해서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되는 정보 참조.

TNA ‘학습곡선’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참조코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관련 정보나 장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NARA ‘교육자와 학생’ 서비스의 ‘문서활용교육’ 메뉴에서는 NARA의 기록검색서비스인 Archival Research Catalogue(ARC)의 고유 번호(identifier)를 제공하지만 기본 기술정보로의 하이퍼링크는 제공하지 않고 ARC 메인화면으로의 하이퍼링크만을 설정해놓고 있다.⁴⁰⁾

이 2가지 사례는 교수·학습용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 기술정보로의 하이퍼링크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 서비스를 통한 기록의 활용이 아카이브즈의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 기술정보로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⑧ 관련 기록 목록

교수·학습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기록 이외에도 학생에게 추가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⑨ 권리사항

콘텐츠 서비스에 포함된 요소들의 저작권 사항을 명시하고, 교사·학생이 콘텐츠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저작권 사항을 설명한다.

40) NARA는 교육자와 학생을 위한 ARC 안내서 "ARC Guide for Educators and Students"를 제공하여 기록검색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http://www.archives.gov/research/arc/education/index.html>
<http://www.archives.gov/research/arc/education/arc-guide-for-educators.pdf>

⑩ 교사용 심층 맥락정보, 교사용 관련 기록 목록

학생이 아닌 교사에게 기록별로 특별히 설명해야 할 맥락정보나 관련 기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개발

이하에서는 앞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구조와 구성을 분석·설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성상 유의해야 하는 지점을 포착하여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개발팀 구성

콘텐츠 서비스 개발은 개발팀 구성에서 시작되며, 개발팀 구성은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개발팀 구성 단계의 목표는 ‘한국사 교수·학습활동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라는 세분화된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최고의 품질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구성원으로 개발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개발팀을 구성하는 데에는 아카이브즈의 구성원 이외에도 전문역량 또는 전문업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개발을 일회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획하였을 경

우, 전략적 중요도가 큰 부분은 내부 구성원을 활용하거나 전문 역량을 영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팀 구성에서 유념해야 할 요소는, ① 개발 대상이 기록정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서비스라는 점과 ② 산출물의 용도가 교수·학습자료용이라는 점이다.

아카이브즈에서 아키비스트의 본연의 업무는 보존기록을 이관·인수 또는 수집하여 보존·활용하는 등 기록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업무와 보존기록의 맥락과 내용을 분석하여 검색도구와 열람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기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키비스트 가운데 서비스 전문 아키비스트는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역량을 교육·훈련함으로써 육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전문 아키비스트가 학생과 교사라는 세분화된 고객의 특수한 욕구를 수용하여 교수·학습용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학습용 콘텐츠 서비스의 전문가가 별도로 필요하다.

TNA는 ‘학습곡선’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2개 전문가 그룹을 축으로 하여 개발되고 있다.

- 기록관리 전문가 : 큐레이터와 아키비스트로 구성된다. 기록의 맥락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나 이미지들을 해독하여 역사학자에게 제공한다.
- 교육 전문가 : 교육담당팀과 저자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교육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는 학생이 기록을 활용할 때 재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구조화된 방법론을 개발하여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⁴¹⁾

TNA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아키비스트 이외에도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담당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들은 콘텐츠의 저자로서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개발팀의 주요 구성원을 식별하고 그 역할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개발팀의 주요 구성과 역할

구분	역할 및 기타	소속
개발 책임자	○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총괄 ○ 가급적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 출신	아카이브즈 소속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	○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방법론 개발 ○ 교사 저자 네트워크 발굴 및 운영 ○ 전체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기획 책임 ○ 개발 대상 콘텐츠 발굴 책임 ○ 가급적 교사 출신.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교사 출신	아카이브즈 소속
아키비스트	○ 개발 대상 콘텐츠 발굴 ○ 기록의 맥락정보 파악 및 제공 ○ 기록 해독 및 제공	아카이브즈 소속
역사학자	○ 역사지식 제공 ○ 개발 대상 콘텐츠 발굴	아웃소싱 가능
교사 저자	○ 개발 대상 콘텐츠 발굴 ○ 개별 콘텐츠 저술 ○ 교사 저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지속적 활동	아웃소싱
웹서비스 기획자	○ 전체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 기획 실무	아웃소싱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전체 기록정보 콘텐츠와의 연계에 기반하	아웃소싱

41) TNA의 ‘학습곡선’ 서비스 중 다수의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Ben Walsh는 ‘학습곡선’ 서비스가 기록(source), 기록관리 전문가, 교육 전문가, 최첨단 기술 등 4가지 요소의 결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Ben Walsh, *Teacher's Booklet: A Guide to the Learning Curve*, pp. 6-14 참조.

구분	역할 및 기타	소속
	여 DB 설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 전체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의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 콘텐츠 저술 산출물에 기반하여 콘텐츠별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웃소싱
그래픽 디자이너	○ 전체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의 그래픽 디자인 ○ 콘텐츠 저술 산출물에 기반하여 콘텐츠별 그래픽 디자인	아웃소싱
미디어 제작자	○ 각종 형태의 기록을 디지털 사본으로 제작	아웃소싱
마케팅 담당자	○ 프로젝트 전반의 마케팅 담당 ○ 특히, 이벤트 및 홍보의 기획·진행	아웃소싱 가능

이 프로젝트는 교육용 서비스 담당부서가 존재한다면, 교육용 서비스 담당부서의 주관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전략적으로 학생·교사 대상의 교육용 서비스를 추진하려 한다면 교육용 서비스 담당부서의 설치가 중요할 것이다.

①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는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서, 우선, 선진사례 및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아카이브즈의 전체 서비스에서 특화된 서비스로서의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방법론을 개발해야 하며, 개발팀의 중핵인 콘텐츠 저자를 교사 출신자와 현직 교사 가운데서 발굴하여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웹서비스 기획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실무역량을 활용하여, 아카이브즈의 전체 서비스와 통합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웹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셋째, 아키비스트, 역사학자, 교사 저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로 개발할 항목을 발굴하고 확정해야 한다.

개발팀 구성에서 전문역량을 구비한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과제이다.

TNA의 교육용 서비스 발전사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TNA의 교육용 서비스는 1990년대 중반까지도 지방기록관과 비교할 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에 교육 전문가 출신을 최초의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로 채용한 이후부터는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1998년에 ‘학습곡선’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⁴²⁾

② 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는 자신의 고유 업무인 기록에 대한 지적 통제업무 및 역사학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로 개발할 만한 기록을 선별하여,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가 개발 대상 콘텐츠 항목을 발굴·확정하는 데 조력해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또한, 개발이 확정된 콘텐츠 항목과 관련하여 교사 저자가 기록의 맥락정보 정리나 해독 등의 요청을 할 경우 적극 조력해야 한다.

③ 역사학자

역사학자는 아카이브즈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물론이고 소장하고 있지 않은 기록까지도 포괄하여 자신의 전공분야 지식을

42) Elizabeth Hallam Smith, "Customer Focus and Marketing in Archive Service Delivery: Theory and Practice," pp. 43, 45.

아키비스트와 교사 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역사학자는 아키비스트나 교사 저자가 아카이브즈의 소장 기록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역사지식에 기반하여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로 개발할 항목을 아키비스트와 함께 발굴해야 한다.

④ 교사 저자

교사 신분 또는 교사 출신으로서 콘텐츠를 저작하는, 교사 저자는 개발팀의 중핵이다. 교사 저자 없이는 콘텐츠가 구체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 저자는, 우선, 교수·학습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로 개발할 만한 콘텐츠 항목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교사 저자는 개발이 확정된 콘텐츠 항목을 스토리보드 등의 형태로 저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그래픽 디자이너가 제작한 산출물을 검수해야 한다.

셋째, 교사 저자는 자신이 저술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교사 저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⑤ 기타

마케팅 담당자는 개발 초기부터 마케팅 관점에서 콘텐츠 서비스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개발 과정에서의 논의에 기반하여 이벤트와 홍보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그밖에도 고객관리 담당자, 정보시스템운영 담당자 등의 참

여가 필요할 것이다.

2) 전체 콘텐츠 서비스의 메뉴 구성 : 교육과정과 소장 기록의 접목

콘텐츠 서비스에서의 메뉴 구성은 무슨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로 개발할 항목을 결정하려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 대상 항목을 도출하는 과정과, 아카이브즈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기반하여 개발 대상 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을 병행한 후, 실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여 최종 결정하는 순서로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후에는, 앞의 3. 2)에서 검토했던 콘텐츠 구조로 개발 대상 콘텐츠를 구조화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내지 교과서 분석 결과와 소장 기록 분석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사 교수·학습활동의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에게 매우 적합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기록을 소장하고 있지 않으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으며, 아카이브즈의 대표적인 기록이라 할지라도 교육과정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면 개발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업무 절차와 절차별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로는 소장 기록만을 콘텐츠 개발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보존·관리되고 있는 기록의 분량이 매우 적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자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만으로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난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권을 확보하여 서비스하거나, 해당 기관 웹서비스로의 하이퍼링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제한적인 사용권을 확보하여 제휴 서비스하는 방법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서비스가 가능한 항목이 확대될 수 있다.

제2단계에서는 아키비스트가 개발팀에게 소장 기록의 현황과 주요 기록 목록을 설명해야 한다. 이제까지 기록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활용빈도가 높았거나 역사학자에 의하여 가치를 인정받은 기록의 목록을 포함한 소장 기록 전반에 대한 현황은,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와 교사 저자가 콘텐츠 개발 대상 항목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에는 기록권, 기록철, 기록계열 등의 다계층 분류 구조로 목록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단계에서는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나 교사 저자가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거나 개발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항목을 도출해야 한다. 이때에는 항목별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와 연결시켜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을 적시하고, 또한 추가로 필요한 기록의 성격이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아키비스트에 의해 제시된 주요 기록 목록이 이 과정에서 항목별로 배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4단계에서는 이상의 단계에서 도출된 개발 대상 콘텐츠 항목별로 아카이브즈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이나 제휴 가능한 다른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기록을 검색해야 한다. 이 작업에는 교사 저자, 아키비스트, 역사학자가 모두 참여하여, 개발 대상 콘텐츠 항목별 작업 시트에 기록 목록을 추가하고 모든 기록에 대하여 적절성을 코멘트한다. 이 단계의 작업은 해당 개발 대상 콘텐츠 항목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기록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여 진행한다.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개발팀은 애초에 목표로 했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콘텐츠 항목이 기록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끝내야 한다.

제5단계에서는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서 어떠한 구조로 콘텐츠를 설계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앞의 3. 2)에서 검토했던 콘텐츠 구조와 유사하게 구조화하는 것이 모범적일 수 있다. 이 작업과정에서는 콘텐츠 항목별 서비스 형식도 가결정되어야 한다.

제6단계에서는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를 중심으로 메뉴 구성도를 작성하여 콘텐츠 개발에 착수할 항목들을 확정해야 한다. 이들 항목은 향후에 개별 콘텐츠 기획·설계·제작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제외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

항목이 확정된다는 것은 개발의 규모도 확정되는 것이다. 많은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영국의 TNA ‘학습곡선’ 서비스도, 앞의 3. 2)에서 분석한 것처럼, 1천년의 역사를 대규모 24개와 소규모 50개 등 74개의 콘텐츠로 서비스하고 있다. 항목이 많은 것보다 개별 콘텐츠가 교수·학습활동에 최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TNA의 평가에 유념하여 개발 대상 콘텐츠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개별 콘텐츠 기획·설계·제작

교수·학습자료용 콘텐츠 서비스는 성격상 전체 콘텐츠 서비스의 시작화면에서부터 만족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낱알의 콘텐츠 하나하나가 전체 서비스의 만족도를 결정하게 된다. 따

라서 모든 콘텐츠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1) 주제 설정

주제 설정 단계는 교사 저자가 개별 콘텐츠 항목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초적으로 조사된 기록 이외에도 추가로 정밀하게 기록을 검색하여 최종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기록정보를 선별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인 주제를 설정해내고 그 주제와 부합하는 기록을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기록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길리랜드-스웨트랜드(Gilliland-Swetland)는 초·중·고 학생에게 적합한 1차 사료를 선별하는 데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기록을 선별할 것을 제시하였다.

- 소유권과 지적 권리가 문제될 소지가 없어서, 이용자의 욕구나 교육활동에 맞추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불문하고 제작이 자유롭고 수정이 가능한 컬렉션
- 완전한 다계층 기술이 디지털 형태로 완료되어 위계상 상하 좌우로 다른 관련 기록과의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컬렉션
- 전형적인 가치(exemplary value)를 보유한 기록. 예를 들면, 입장권이나 구멍가게 영수증과 같이 아키비스트의 입장에서 정보가치가 미미해 보이는 것들
- 시각적 요소가 강렬한 기록. 오디오 기록도 유용하지만, 시각적인 것과 연계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는 호소력이 약하다

- 지역적 관심이 큰 기록. 지역공동체와의 연관성이 높은 1차 사료는 학생들이 손쉽게 자기동일시 하게 마련이어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지식의 측면이나 정치·문화·사회적 사건 또는 현상의 측면에서 독창적인 진전이 일어난 것을 문서화한 기록
- 도서(특히 전기나 자서전), 연구논문, 공예품과 같은, 결과물(corollary materials)이 포함되어 있는 컬렉션⁴³⁾

또한 LC ‘미국의 기억’ 서비스는 개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중심으로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 재미있는 방법으로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아이템
- 이용자가 과거에 워싱턴 D.C.에 여행을 왔었다면 봤을 것만 같은, 국회도서관에만 있는 유일한 아이템
- 저작권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이면 문제가 없는 아이템
- 국회도서관의 컬렉션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템
- 디지털화 과정에 매우 적합한 아이템⁴⁴⁾

주제가 설정되고 기록이 선별되면 이 목록을 개발팀 내에서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 아키비스트, 역사학자가 함께 검토하여 확정한다.

43) Anne J. Gilliland-Swetland, "An Exploration of K-12 User Needs for Digital Primary Source Materials," *American Archivist* 61, Spring 1998, pp. 153-154.

44) The American Memory User Evaluation Team, The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Memory User Evaluation 1991-1993*, The Library of Congress, 1993. Anne J. Gilliland-Swetland 외, "Integrating Primary Sources in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p. 114에서 재인용.

(2) 교수·학습 구성안 작성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와 연계할 기록을 선별하면서 교사 저자는 자연스럽게 교수·학습활동을 상정하게 된다. 이를 교수·학습 구성안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작업이다.

교수·학습 구성안 초안이 교사 저자에 의하여 작성되면 개발팀 내에서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 아키비스트, 역사학자가 함께 검토하여 확정한다.

(3) 스토리보드 작성

교수·학습 구성안을 통하여 교수·학습활동의 윤곽이 잡히고 교수·학습자료로 제작되어야 할 것의 모습이 그려지면, 이를 이용자와 화면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교사 저자가 스토리보드로 작성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웹서비스 기획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의 전문 지식을 교사 저자가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웹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신기술과 기법들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교사 저자가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사례를 확보하고 상상력을 발휘할수록 고품질의 스토리보드가 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사 저자는 이 단계에서 흥미 유발을 위한 장치를 어느 수준에서 결합할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야 한다.

TNA ‘학습곡선’ 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늘 직면하는 문제였다.

재미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엄밀한 사고를 자극하고 장

려하는 활동에 초점을 둘 것인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항상 문제이다. ... 우리는 ‘학습곡선’ 서비스를 통해서 엄청난 시간과 생각을 필요로 하거나 엄청난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활동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학습곡선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보다 좀더 정보를 얻게 된 상태가 되기를 희망할 뿐이다.⁴⁵⁾

또한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을 어느 정도 동원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학생의 집중력을 높이는 수준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제한 애니메이션의 남발은 오히려 학생의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호도하기 십상이다.

이상의 작업을 통하여 스토리보드 초안이 교사 저자에 의하여 작성되면 개발팀 내에서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 아키비스트, 역사학자가 1차 검토한다. 그 다음에는 웹서비스 기획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가 2차 검토한다. 교사 저자가 작성한 스토리보드는 웹서비스 기획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가 곧바로 제작에 착수하기에는 지시가 불명료한 부분이 많기 마련이다. 교사 저자는 웹서비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검토에서는 웹서비스 전문가들이 스토리보드상의 불명료한 부분을 적극 보강하는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여 문서상으로 모든 지시사항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웹서비스 전문가들은 교사 저자의 의도와 콘텐츠의 내용을 숙지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 단계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45) Ben Walsh, *Teacher's Booklet: A Guide to the Learning Curve*, p. 16.

(4) 웹페이지 제작

확정된 스토리보드에 근거하여 교사 저자는 최종적으로 텍스트 원고를 작성한다.

또한 미디어 제작자는 확정된 스토리보드에서 지정한 기록을 디지털 사본으로 제작한다. 이미 디지털 사본이 존재한다면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스토리보드상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규 제작한다.

디지털 사본 제작 중 가장 많이 제작되는 매체는 이미지 파일이다. 이 경우 원본을 직접 열람하는 것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제작해야 하는데, 원본의 질감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본을 직접 스캐닝 하지 않고 사진촬영 단계를 거쳐 디지털화하는 등의 고도화된 방법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애초에 설계된 스타일 가이드를 기반으로 하여 그래픽 디자이너가 화면을 디자인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웹페이지를 구현한다.

각각의 웹서비스 개발 전문가들이 자신의 공정에서 완성한 산출물은 교사 저자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교사 저자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 이용자, 즉 학생의 눈높이를 체득하게 되고 그 결과 고품질의 산출물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개별 콘텐츠의 제작은 완료된다.

5. 맺음말

길리랜드-스웨트랜드는 아카이브즈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발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아키비스트에게 다음과 같은 미증유의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고 일찍이 분석한 바 있다.

- 사회 내에서 기록관의 연관성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업무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증거로서의 기록이 지니는 중요성과 연관성 그리고 복잡성을 인식하는, 정보 활용능력뿐만 아니라 기록 활용능력을 보유한 지지자를 증대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문화유산 관련 커뮤니케이션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교실에서의 정보기술 응용 및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할당되고 있는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이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대학 선택시 기록학을 장려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⁴⁶⁾

이 글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정보 서비스에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교사·학생 대상의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LC ‘미국의 기억’ 서비스는 자신들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 적이 있다.

- 1차 사료 활용능력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학생의 욕구

46) Anne J. Gilliland-Swetland, "An Exploration of K-12 User Needs for Digital Primary Source Materials," p. 137.

- ‘미국의 기억’ 컬렉션이, 프로젝트가 선택한 교수방법(산출물 기반의 교육 포함)을 지원하기에 충분했다는 점
- 교사와 사서가 자신들의 동료와 학생에게 ‘미국의 기억’ 1차 자료 컬렉션을 소개하는 데 대거 참여했다는 점
- ‘미국의 기억’ 컬렉션이 교육과정을 지원하기에 충분했다는 점⁴⁷⁾

한국의 기록관리 현실을 살펴볼 때, 위의 성공요인 가운데 어느 하나도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점은 소장 기록이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할 만큼 풍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기록관리 원리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기록을 기록의 성격에 맞도록 체계화하여 과학적 원리에 입각한 기록관리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⁴⁸⁾

그러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목표를 바로 세운다면, 서비스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기록관리 품질의 점진적 향상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서비스 개발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기록관리 품질의 점진적 향상’을 위한 주요한 방편으로서, ‘한국사 교수·학습 활동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자

47) The American Memory User Evaluation Team, The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Memory User Evaluation 1991-1993*, Anne J. Gilliland-Swetland 외, “Integrating Primary Sources in the Elementary School Classroom,” p. 95에서 재인용.

48) 오향녕, 「역사교육의 또 다른 지평, ‘아카이브’」 『역사교육』 101, 역사교육연구회, 2007, 325쪽.

료를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개발을 상정하고,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과 개발절차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한다.

아카이브즈 또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분석하여, 이를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 개발단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기록관리의 체계화와 전통적인 기록관리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고객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록을 선별해내는 작업은, 소장 기록 전체를 체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소장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내는 작업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분류·기술이 강화됨으로써, 전통적인 검색도구의 품질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 서비스를 설계할 때에도, 콘텐츠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록이 전통적인 검색도구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콘텐츠 서비스가 자관 소장 기록 전체와의 연결고리가 되고, 이용자가 여러 가지 기록관리 방법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지닌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는 아키비스트와 역사학자 등 아

카이브즈의 전통적인 내부·외부 구성원들과 협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현직 교사를 콘텐츠의 저자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기록정보와 주제별 교수·학습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은 주제별 교수·학습을 중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의 연속으로 교수·학습이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록정보가 교사와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려면 학습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기록정보는 단순히 학생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수·학습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 즉 기록정보 콘텐츠의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각자 인터넷을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이용자 환경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콘텐츠의 수량보다 콘텐츠의 품질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다량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소량일지라도 학습목표의 핵심에 다가가 있고 교수·학습활동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콘텐츠의 수량만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산이 있다면, 소장 기록 전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거나 콘텐츠 서비스 방법론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보존·관리되고 있는 기록의 분량이 매우 적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자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만으로는 콘텐츠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난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다른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의 제휴 노력을 통

하여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 글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카이브즈 또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실제 상황, 특히 소장 기록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이다.

실제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현황은 최종적인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이 글은 실제 실현 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사 관련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이다.

교과서 분석을 진행하면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수요 지점 내지 개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상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라도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교과 관련 대상을 국사로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이다.

세분화된 고객을 ‘한국사 교수·학습활동 당사자로서의 학생과 교사’로 식별하고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논의는 구체화할 수 있었으나, 국사가 아닌 (일반)사회, 도덕, 국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교과에서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외되었다.

넷째,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만으로 기록관리기관의 범위를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이다.

현용·준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관에서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중·고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2011년에는 모든 국사 교과서가 새로운 내용으로 보급될 예정이고, 서책형 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 시기에 학생·교사 대상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된다면, 기록문화의 창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사를 교수·학습하는 430만명의 학생과 1만 4천명의 교사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로 교수·학습하게 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념을 확립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아카이브즈 중심의 서비스’ 또는 ‘기록 중심의 서비스’ 등 과거의 개념을 극복하고 업무추진방식과 조직구성 등을 개선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심도 깊게 분석해야 한다.

기록관리와 학교교육이라는 양측면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의 환경에서부터 기록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수요 지점까지를 파악해내야 한다.

셋째, 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기록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의 구조 및 구성에서부터 세부적인 개발절차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방법론 개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품질을 달성해내는 것이며, 이를 지속가능한 체계로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 전문가집단과 교사집단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기록관리와 학교교육을 접목시켜야 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사료학습과 관련된 현재의 논의 수준을 기록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학문적 노력도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2011년까지의 단계별 추진 과제와 추진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1년 단위의 사업관행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과제와 일정을 수립해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록문화의 창달을 위한 알찬 씨앗이 초·중·고등학교에도 하루빨리 뿌려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Shim, Sungbo

Nowadays Korean main archives and manuscript repositories are planning to develop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for students and teachers in their web sites.

This study is aimed at discovering main issues of developing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for students and teachers and finding a solution.

The goal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for students and teachers is the promotion of use through launching service and the gradual growth of archival management program.

The customer group is segmented into the students and teachers who are learning and teaching Korean history in classroom. As a result of analyzing curriculum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e archival information must be developed into teaching-learning materials. And the processing archival information into archival content is needed. Consequently the character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for students and teachers is conceptualized as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At every step of developing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the next main points are considered and achieved.

First, the strategy of customer-focused service must be the same from

beginning to end.

Second, the growth of traditional archival management(e.g. classification, description and finding aids) must be contributed.

Third, the collaboration system leading by professional education staff must be organized.

Fourth, the archival information must be related with teaching-learning activities.

Fifth, the quality of cont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quantity of it.

Sixth, the networking with another agencies for cooperation must be considered.

Key words: Archives, Manuscript repository, Archival information, content, reference service, teaching-learning materials, education